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 출범

## 도교육청 제출 추경안 원안 통과

도의회, 자치도 추진 위해  
의회 차원 지원 나서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부위원장에 엄영선 의원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21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부위원장에 엄영선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5일 개최한 9월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 구성은 김희수 위원장(전주), 엄영선 부위원장(정읍)을 비롯해 김성수(고창), 김정수(익산), 권요안(완주), 김동구(군산), 최형열(전주), 이수진(비례), 윤영숙(익산), 박정희(군산), 장연국(비례) 위원 등 11명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

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수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이 처한 현실에 도민들의 상실감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 하기 위해서

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법안 통과 시 명칭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실익이 될 수 있는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20건 가해자들 중 80%가 '음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들이 주취자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으로 폭행 가해자 중 16명(80%)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폭력·범죄경력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게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등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

도의회 교육위, 새만금 잼버리 지원 조례안 등 6개 의안 의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여를 못하는 학생과 교원을 위해 김승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북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6개 의안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6개 의안으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김승지 의원 발의)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교 및 학교군 추천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교육감)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등이 있다.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하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과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의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회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며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관해 "공·사립 구별 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심사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 건'과 총 추경예산금액 8,495억 원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경수 기자

### 여가부장관, 새만금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 부안 잼버리 현장 방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대회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2023년 8월 1일 전북에서 개최한다.  
김 장관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조성,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논의했다.  
세계잼버리 부지는 지난해 9월 준공했으며 기반시설, 대집회장, 야영시설 및 영의활동장 등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 8월 개최 일정에 맞춰 정상 진행 중이다.  
참여자 프로그램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100종, 190여개의



체험 중심으로 만들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최종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감염병, 여름철 태풍·홍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신속하고 안전한 참가자 수용교통 등의 대응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는 170여개 나라에서 5만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인권침해 상담·조사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송승용 도의원, 전북 인권보호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권한 충돌 여부·기초지자체 인권조사 실시 여건 등 검토



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비교 토론했으며, 안재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 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했

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이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해 토론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해 시행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대상 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북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